태초의 퇴근과 하나님 형상

(창2:1~3)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태초의 퇴근과 하나님 형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태초의 퇴근이라고 명한 것은 우리가 읽은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안식을 퇴근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오늘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안식의 근본적인 의미, 왜냐하면 태초의 안식이기 때문에 태초, 가장 큰 처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있게 되는 수백 수천의 처음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안식에 관한 언급들이 사실은 이 태초의 안식에서 그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 구약성경에서의 선민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성전 개념보다도 안식이 더 먼저 나오고, 어찌 보면 성전은 이 안식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뒤따라온 장치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안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안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왜 안식을 퇴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안식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 안에는 제일 먼저 '정지, 중지'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단어 사용의 용례를 보면,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얘기할 때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11절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지라는 뜻이 들어있고 또 쉰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많이 고단하신 일이었던가? 하나님이 피곤하셨던 것일까?
우리 인간들처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지치고 탈진해서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태일까?
생각해보면 이 무한한 우주, 그리고 그 무한한 우주 중에 정말 티끌밖에 안 되는 이 지구 위에도 무한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비, 나비의 날개를 보셨어요? 벌, 하다못해 파리, 그리고 형형색색의 갖가지 모양의 꽃들, 바다 속 물고기의 갖가지 모양들, 그걸 다 생각해서 하나씩 만드신 겁니다.
진화라는 것은 그냥 장난이지요, 그런 말은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생각하심, 그 창의적인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이런 것을 다 만드시려면 그 미세한 것으로부터 큰 바다와 산과, 산도 모양이 다 같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 된 소나무로 만든 통나무집의 예처럼, 실재의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입니다, 6000년가량 된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과학자들의 연대측정이 맞다면 150억년 된 재료를 써서 우주를 만드시고, 46억년 된 재료를 써서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그 우주가 무한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실지라도 지치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쉰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지으셨는데요, 뭐.
말씀으로 지으셔서 있게 되었는데…
하긴 말씀도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들고 지치고 탈진하셔서 일을 정지하시고 쉬신 건 아니죠.
그러면 대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창조이야기를 다시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이 창조의 이야기 위에서 나오는 얘깁니다.

그러면 창조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세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조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외의 영역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설계도를 만드시는데, 모든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 거하는 세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있는 깊음의 속성으로 설계됩니다.
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으시고 이것들이 극복되는 과정이 창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질 때.
그래서 이 창조이야기는 창조 자체를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창조주를 전하려는 데에 더 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 오해하는 것도 창조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창조 대신에 진화론이나 빅뱅이론을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창조주를 믿지 않고 창조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천년 된 소나무로 통나무집을 지었는데 일주일 뒤에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이 통나무집이 몇 년 된 집인가를 측정하는데, 통나무를 뚝 잘라서 측정해보니까 천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역사가 천년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얘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어떻게 아담의 역사는 6천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구의 역사가 46억년으로 측정이 되는가, 우주의 나이가 150억년으로 추정이 되는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엘로힘,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150억년짜리 재료를 써서 지구를 만드셨다, 이게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과학자들의 추정이 맞다고 한다면 150억년 된 재료를 가지고 우주를 만드시고, 46억년 된 재료를 가지고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서 가지가지의 동식물과 생명체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하셨다는 얘기에요.
안식이 중지하고 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원래 하나님께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인동형론 쪽으로.
인간이 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쉼이 필요 없지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다는 얘기를 하고 안식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쉴 때는 어떻게 그 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할 때 헬리콥터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쉰다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헬기를 정비하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일과가 다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서 쉬는 것이 있고, 또 헬기 격납고 안에서 정비를 하는 중간에도 또 쉽니다.
근데 이렇게 쉴 때나 저렇게 쉴 때나 공통적인 쉼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을 하고 있던 그 장소를 떠나는 겁니다.
격납고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헬리콥터 날개부분을 정비하고 있다가 쉬게 되요, 두 시간 정도 일하고 한 15분 쉰다고 하면 반드시 그 날개부분을 떠나서 내려와서 밖에 나가서 쉬든지 아니면 격납고 안에 있더라도 의자에 앉아서 쉽니다.
장소를 떠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쉼, 우리가 휴가를 간다고 할 때도 늘상 머물고 있던 직장과 집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또 집으로 갑니다, 퇴근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고 하는 이 얘기는 인간의 삶에 비추어 비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시던 하나님의 세계만이 있다가 창조를 하시면서 피조물들이 있게 되는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의 세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있는 깊음으로 설계되었는데, 그 장소에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표현해내시면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말씀과 계획을 알을 품듯이 부화시키셔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 하나님의 직장으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터로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이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 작업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본래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만의 공간인 천국으로 퇴근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퇴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안식을 하려면 반드시 장소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쉼이라는 것은 작업하는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손도 장소가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손으로 헬리콥터 날개를 정비하다가 그 손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겁니다.

커피 잔을 잡는다든지 자동판매기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서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장소가 옮겨짐이 있어야 일도 정지가 되고 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퇴근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피조의 세계에서 창조라는 작업을 하시다가 영원하신 당신의 나라로 퇴근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인간은 만물의 꼴찌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수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늦습니다.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는 존재하게 되면서부터 생래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수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혼돈과 공허를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다운 자리, 백합화가 백합화답고 공중에 나는 새가 새다운 그 자리에 비로소 도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만물의 꼴찌이지만, 만물의 꼴찌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격적 과정을 통해서 도착해야 되는 것이고, 인격적 과정을 통해서 도착한다는 의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피조의 세계를 만들자, 그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자!'
그러므로 피조의 세계 전체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평강의 세계에 참여시키도록 하자!'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계속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안식일이 갖고 있던 의미가 살아서 주님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식이 뭐냐 하면, 장소를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시다가 그 피조의 세계라는 작업장으로부터 퇴근하셔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셔서 누리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 속에 인간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식에 우리 인간들을 참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이 피조의 세계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마음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간을 하늘나라에 만들어두시지, 왜 피조의 세계를 만들어서 우주까지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뒤에 인간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오게 하셨느냐?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666이 뭐라고 했지요?
이 세상에서 마음을 쓰는데, 잠시도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잠시도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까?
지독하게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할 때는 그 대상이 사람이건 돈이건 정치권력이건 뭐든지 간에 자나 깨나 잊지 못합니다.
자꾸자꾸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666이란 것은 잠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직장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6가지 신경을 썼으면 일곱 번째는 이 세상이라는 직장을 떠나서 하나님나라로 마음이 옮겨져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겁니다, 마치 퇴근 후 일과 후에 모든 가족이 집 바깥으로부터 집으로 모여서 맛있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게 화목한 가정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신 거예요.

왜 창조를 하셨습니까?
당신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평강 가운데에 참여할 타자(他者)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참여할 타자가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의 세계에서 육체를 통해 만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이는 피조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퇴근해서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위치에 서서 아버지를 자녀로서 만나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평강을 함께 나누게 하시려고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놓으시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 땅으로부터 퇴근하는 것을 즐겨하도록 기뻐하도록 창조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퇴근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퇴근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직장에 나가서 퇴근한 게 아니라, 직장에 나가기 전에 엄밀하게는 직장에서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쉬는 것부터 한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도덕적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성적 생각이 가능한 판단력이 있다는 겁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지 형상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짓자.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당신의 안식에 인간을 참여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안식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일이 뭐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그 지고의 평강과 샬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지고의 샬롬,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의 세계를 누리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이 비었습니다, 근데 영원 전부터 아들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비었습니다, 근데 영원 전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보고 계시는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 속으로 받아들여지고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속으로 받아들여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교류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역동성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하나님과 아버지하나님의 교제의 역동성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버지 안에 들어와 계신 아들이 성령님이시고, 아들 안에 들어가 계신 아버지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어져야 돼요, 비어져 있으면서 아들 안에 아버지가 들어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도 아버지가 들어오시게 돼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아들의 자리에 함께 설 때, 아들과 연합해서 함께 설 때.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요한복음 1장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아들의 자리에 인간이 설 때 아들과 하나님 간에 있었던 그 교제가 지금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것이 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정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예 안식 자체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돼버리고, 안식일 날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위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인생의 직장으로부터 퇴근할 때.
퇴근할 때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하나님이 만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기 시작하고 혼돈과 공허가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백합화를 보라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아버지의 주체성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아버지의 주체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라고 염려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이 말은 질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혼돈과 공허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에 참여하지 않고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담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안식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안식에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의 이야기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안식에 참여한 인간만이 이 땅에서의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인간으로 살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그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사건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퇴근하는 거예요.
태초의 하나님의 퇴근, 퇴근은 장소가 이동되는 겁니다, 왜 이동됩니까, 쉬기 위해서.
쉬는 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안식,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던 그 평강이 내게도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아들하나님과 아버지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신 그 과정에 내가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나도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음 받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여가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지요.

이 안식이 우리의 삶에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자기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을 먼저 맞이했던 것처럼, 안식이 삶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태초, 처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놓으시고 퇴근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퇴근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질문하는 삶, 혼돈과 공허가 지배해서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태초의 퇴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이 땅에서의 퇴근이 되는 것이고, 이 퇴근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갈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깊음이 극복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알들이 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을 찾아야 됩니다.
태초의 퇴근이 나의 퇴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근본적으로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으로부터 완전히 퇴근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이라는 직장에서의 모든 활동은 단지 나는 장갑 되어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는 활동들로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